

GIST, 보직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개최

- 작년에 이어 2024년 보직자 맞춤형 대면 교육 실시... 임기철 총장 비롯 교학·연구·대외부총장 등 GIST 주요 보직자 16명 참석
-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캠퍼스 조성 위해 성인지 및 인권감수성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 가져... "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"



▲ 양윤전 공인노무사가 GIST 보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보직자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, 인권 친화적인 안전한 캠퍼스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**보직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**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지난 22일(수) 오룡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**'인권 친화적인 조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'**을 주제로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김상돈 교학부총장, 이광희 연구부총장,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보직자 16명이 참석했다.



▲ 임기철 총장과 김상돈 교학부총장 등 GIST 보직자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듣고 있다.

이날 강단에 선 노무법인 '서강'의 양윤전 노무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서 ▲**안전한 일터 만들기** ▲**갑질, 직장 내 괴롭힘 정의** ▲**성희롱의 보호 법익** ▲**성폭력 등 관련 사례** ▲**감수성 기르기** ▲**예방을 위한 노력** 등에 대해 설명했다.

참석자들은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,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특히 서로를 존중하고,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. 아울러,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해결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.

임기철 총장은 “폭력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, GIST 구성원들이 학업, 교육, 연구,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이고,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 권익인권센터(센터장 홍석원)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(보직자) 맞춤형 법정 의무교육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.